

LPGA 태극낭자들, 롯데 챔피언십 6승 도전

내일 하와이 개막... 유소연 백투백 우승도전 · '골프여제' 박인비 · '슈퍼루키' 박성현 등 대거 출전

올 시즌 볼풍을 넘어 광풍을 일으키고 있는 한국 여자골프가 미국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6승에 도전한다. 오는 13일(한국시간) 미국 하와이주 오아후섬 코올라나 골프클럽(파72·6397야드)에서 LPGA 투어 롯데 챔피언십(총상금 200만달러)이 열린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기아 클래식, 볼빅 챔피언십, KEB하나은행 챔피언십 등과 함께 국내 기업이 개최하는 LPGA 정규투어 대회다.

올 시즌 LPGA 투어 7개 대회 중 무려 5승을 쓸어 담은 한국 선수들은 주력 선수들이 대거 출전하며 여섯 번째 승진보통을 기대한다.

시즌 마수절이 우승을 따낸 장하나(25·BC카드)를 제외하고 안희영(28·PNS창호), 박인비(29·KB금융그룹), 이미림(27·NH투자증권), 유소연(27·메디힐) 등 1승을 거둔 선수들이 모두 나선다. 시즌 첫 메이저대회인 ANA 인스퍼레이션에서 3개월 만에 무관의 설움을 털어낸 유소연은 최근 무서운 기세를 몰아 백투백 우승을 노린다.

세계랭킹 2위인 유소연은 현재 삼강행기(70만2168달러)는 물론, CME 글로벌 포인트(1425점), 평균 타수(68.050), 그린 적중률(83.9%) 등에서 1위에 올라있다.

시즌 5개 대회 중 우승 1회와 준우승 2회 공동 5위, 공동 7위 등 모두 톱7에 드는 등 절정의 기량을 과시 중이다. 건강하게 시즌을 보내고 있는 '골프여제' 박인비는 영원한 우승 후보다. ANA 인스퍼레이션에서 공동 3위를 차지하며 이를 닦았다. 각종 주요 부문에서도 상위권



오는 13일(한국시간) 미국 하와이주 오아후섬 코올라나 골프클럽(파72·6397야드)에서 LPGA 투어 롯데 챔피언십이 개최된다. 왼쪽부터 세계랭킹 2위인 유소연·박인비·박성현



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슈퍼루키' 박성현(24·KEB하나은행)은 데뷔 첫 승을 노린다. 장타여왕 답게 평균 드라이버 비거리(275.688야드) 부문 2위로 LPGA 무대에서 장타를 평평 날리고 있다. 우승 소식은 전하지 못했지만 4개 대회에 출전해 '톱5'에 두 번 들었다. 모두 '톱15'로 대회를 마감했다. 드라이버와 퍼트의 정확도만 조금 높다면 당장 이번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 제작년 이 대회 우승자 김세영(24·미래에셋)도 시즌 첫 승에 도전한다. 김세영은

올 시즌 6개 대회에 출전해 톱10에 단 1차례 들었을 뿐 모두 20위권 밖에 머물렀다. 우승을 경험했던 코스인 만큼 반등의 기회로 삼으려 한다. 디펜딩 챔피언 호주 교포 이민지(21)는 올 시즌 이미 두 차례 컷 탈락하는 등 주춤했으나 ANA 인스퍼레이션에서 공동 3위에 오르며 3강을 회복했다. 뉴질랜드 교포 리더야 고(20)는 최근 세계랭킹 1위 답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시즌 첫 우승에 대한 욕심을 숨기지 않고 있다. 2014년 이 대회 우승자이자 최근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재미교포 미셸 위(27) 역시 아마추어 시절부터 익숙한 코스에서 이 대회 두 번째 타이틀에 획득에 나선다. 국내 기업이 개최하는 대회인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선수들도 감쪽 우승에 도전한다. 장수연(23)과 박성원(24)은 지난해 KLPGA 투어 롯데마트 여자오픈과 '롯데캐논 여자오픈' 우승자 자격으로 출전권을 획득했다. 김혜림(29)은 후원사인 롯데측의 배려로 미국 무대에 선다. /김민근기자

KBO, 대한적십자사 홍보대사 10명 확정

KBO(총재 구본능)와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는 KBO리그 각 구단별 1명씩 총 10명의 선수를 2017년 대한적십자사 홍보대사로 확정했다.

홍보대사는 두산 최우환, NC 최강강, 넥센 김민성, LG 박용택, KIA 서동욱, SK 박희수, 한화 안영명, 롯데 김문호, 삼성 이원석 kt 주권 등이다.

박용택은 KBO리그 선수가 대한적십자사 홍보대사로 참여하기 시작한 2012년부터 올해까지 6년 연속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김민성은 2014년부터 4년 연속 김문호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됐다.

대한적십자사 홍보대사로 선정된 선수들은 이달 중 사회공헌 홍보영상을 촬영할 예정이다.

촬영된 영상은 구장 전광판을 비롯해 KBO와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 공식 홍보 채널 등을 통해 공개된다.

한편 KBO와 대한적십자사는 사회공헌 홍보영상 제작뿐 아니라 KBO 정규시즌에서 기록되는 1세이브마다 20만원의 기부금을 적립하는 '드림 세이브(Dream Save)'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펼친다. /김민근기자

U-20 월드컵 조직위, 참가국 관계자 초청 설명회

2017피파U20세월드컵조직위원회(조직위)가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2017 참가국 대사관 관계자를 초청해 대회 준비 상황설명회를 개최했다.

조직위는 11일 서울 용산구 조직위 사무실 인근에서 설명회를 열고 "23개 참가국 대사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팀 서비스, 안전, 의전, 출입국, 승수, 등록 등 대회 관련 전 분야에 관련한 서비스와 협조 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곽영진 부위원장은 "FIFA U-20 월드컵은 FIFA에서 개최하는 4대 축구대회(월드컵 U-20 월드컵, U-17 월드컵, 컨페더레이션스컵) 중 하나로 성인 월드컵 못지않은 규모와 국제적 위상을 지니고 있는 대회다. 조직위와 참가국 관계자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이번 대회가 모두의 축제가 되길 기원한다"고 협력을 당부했다.

조직위는 각 개최도시별로 구성 중인 참가팀별 서포터즈에 대한 진행상황을 설명했고, 각각 대사관들도 자국민 또는 관계자들과 함께 경기장을 자국의 응원가와 컬러로 응원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한편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2017은 오는 5월 20일 전주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과 기니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6월 11일까지 23일간 열린다. /김민근기자

한국여자축구연맹 미디어데이 7개팀 사령탑, "우승 후보는 현대제철"



IBK기업은행 2017 WK리그 개막을 앞두고 8개 구단 감독들이 우승 후보로 인정한 현대제철을 꼽았다. 한국여자축구연맹은 11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IBK기업은행 2017

WK리그 미디어데이를 열었다. 올해 WK리그는 경주 한국수력원자력이 창단하면서 8개 팀 체제로 치러진다. 이날 미디어데이에서 WK리그 사령탑들은 우승 후보로 현대제철을 꼽고 견

제했다. 현대제철은 지난 시즌 WK리그 4연패를 달성하면서 올 시즌 역시 강력한 우승후보다.

지난 시즌 챔피언결정전에서 현대제철에 패한 이천 대교의 신상우 감독은 "현대제철이 (우승이) 유력하다. 우리도 코칭스태프가 바뀌었지만 선수들은 그대로다. 이것이 선수들에게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현대제철의 우승을 막고 싶다"고 말했다.

수원시청관리공단 김상태 감독도 "현대제철이 시즌 초반 국가대표 선수들의 차출로 고전할 수도 있지만 금방 본래 모습을 찾을 것"이라고 한표를 던졌다.

보은 상무의 이민영 감독 역시 "현대제철이 올해 다섯 번째 별을 달 것 같다"고 말했다. 화천KPO 강재순 감독과 서울시

청 박재화 감독 역시 "현대제철의 1강 체제가 올 시즌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모든 팀들에게 우승 후보로 지목받은 현대제철 최인철 감독은 "목표는 통합 5연패다. 물론 쉽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뗐 후 "올 시즌 목표는 승점 80점을 꼭 따내고 싶다고 강조했다. 최 감독이 강조한 승점 80점은 28라운드 치러지는 정규리그에서 2승 2무 이상 거둬야 달성할 수 있는 기록이다.

반면 올 시즌 가장 고전을 면치 못할 팀으로는 신생팀 경주 한수원이 지목받았다.

이에 하급진 감독은 "젊은 선수들과 자유계약(FA)으로 영입한 선수들의 노하우를 통해서 그라운드에서 젊은 패기를 앞세워 빠른 시간 내 적응하도록 하겠다. 신생팀이라고 대충하지는 않을 것이다. 전략적으로 상대팀을 분석해서 좋은 경기를 보여드리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김민근기자

KBO 공인구, 1차 수시검사 합격기준 통과

KBO는 11일 2017 타이어뱅크 KBO 리그 경기사용구 1차 수시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검사는 KBO 리그 단일 경기사용구인 (슈스카이라인 AAK-100)의 무작위 샘플 3타를 수거해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용품 시험소에 의뢰해 진행했다.

공인구의 반발계수, 돌레, 무게, 솔기폭, 실밥수 등을 모두 검사한다.

조사 결과 3타의 샘플 모두 합격기준에 적합했다. KBO 리그 단일 경기사용구인 (슈스카이라인)의 AAK-100은 지난해에 이어 2017 KBO 시범경기과 정규시즌, 올스타전, 포스트시즌 등 KBO 리그의 공식 경기에 사용된다. /김민근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